

## 반 자연주의 미학

- 서울 시청사 계획안 -

김 여란지외 기럭시며 홍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 가. 전통건축 미학을 배우자

#### 1) 전통건축 미학의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

한국전통건축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나 미학이 있다. 건축계획론적인 복거론이나 상택지, 기술론적인 영조론, 미학적인 양택론 등등 다양한 이론서들이 있었다. 물론 기록이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학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구나 천착이 일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세대 김성우교수 등에 의해 번역된 부분도 있고 건축사학자들에 의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현재의 건축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연구의 질이 현실 적용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설계자의 요구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좀 폭넓은 도시계획론에 가까운 이론인 풍수지리에 대한 섭렵은 꽤 관심을 보이듯 싶다. 그 분야 책이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올라가고 건축쟁이 몇 사람도 이것을 간판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연구가 미진함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형국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까지 음택 풍수적인 상징적 형국에 대해 논한 연구자는 있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에 한필원교수가 마을 형국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아직 별도의 이론서로 독립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성대 이상해교수 연구실에서 풍수향법의 논리 체계에 대한 연구(조인철)와 계명대 이종우교수 연구실에서 양택론의 기론을 자연환경적 과학의 논리로 입증하려고 한 연구(박현장) 등 몇몇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천착의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양택서에서 말하는 방위, 좌위, 향위에 대한 논리, 몇 층집이라고 말해지는 건축군의 켜(수직공간)에 대한 논의, 공간(마당)에 의해 말해지는 정택, 동택, 변택, 화택에 대한 말, 시선 목표와 시점설정에 대한 관점, 집의 중심 개념과 주된 공간 및 출입구와의 관계 설정 관계, 간접이 방식론, 심지어 입면에서의 3분법 그리고 어떨 때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가- 긴장과 느슨함, 절정과 휴식, 격식과 과(자유), 미와 도-에 대한 미학적 관심 등등. 많은 이론적 배경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일반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유명 건축가들은 이를 다 무시한다. 근대건축을 우리에게 심어준 일인들이 무조건 우리 것은 깔아뭉개고 서양 것을 베끼는 것이 현대건축이라고 가르쳤고, 우리 선배들은 이런 이론을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했기 때문에 무

조건 서양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선진국에 하루빨리 진입하는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 2) 각종 건축관계 양택서를 번역해야

최근 서점가에는 조선에 대한 연구서가 봇물을 이룬다. 개중에는 베스트셀러 반열에 끼기도 한다. 요즘 같은 불황기에 왜 조선이 중요한가? 하고 반문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대답한다. 왕조실록 번역본 CD 때문이란단다. 내가 젊었을 적에 왕조실록을 집에 들여놨다. 건축쟁이인 내가 왕조실록이 필요할 리가 없다. 그런데 통문관 아들이 “100권 밖에 영인을 안 했는데, 혹 전쟁이라도 나면 당신 것만 남을지도 모른다.”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 무거운 걸 집 2층에 올렸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집이 무너질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지하실이 넣어두었다가 요즘에야 겨우 책장에 쌓아두고 있다. 번역본은 커녕 원본도 무거운 판에 이것이 CD 몇 장으로 번역본까지 들어가 있고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하더니…. 말하자면 조선 관계 연구서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손쉽게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이란단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앞서 지적했던 연구자 조인철도 이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신의 연구가 많은 번역서의 등장으로 가능했다는 고마운 말을 남기고 있다. 지금 우리는 왕조실록에 기록된 각종 건축미학 관계 기사들도 한꺼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양택서 번역이 돈벌이가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후학을 위해서 번역을 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단다.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과 대화를 못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문을 공부한 건축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3) 한국 현대건축의 미학을 확립해야 선진국에 진입한다.

이제 우리도 후진국을 벗어나서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한다면 세계 제1의 제품과 철학이 탄생되어야 한다. 건축도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 특유의 독특함이 살아 있어야 1등을 할 수 있다. 재료와 기술이 다 현대적으로 변화한 지금 예전 전통건축의 형식만을 빌려 올 수는 없다. 전통적 건축철학, 미학이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담보할 수 있는 세계 보편적 건축 형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세계화시대 경쟁력 있는 글로벌로케이션 건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국 현대건축이 될 것이다.

건축의 아름다움이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인의예지신의 어떤 것일까? 아니면 윤리학적이어야 하는가? 아름다움이란 윤리학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우리 선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 나. 인간 소유주론과 건축

### 1) 인간 소유주론

전통건축 미학 가운데 가장 흥미를 끄는 대목은 인간의 소유주론이다. 우주의 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구이며 지구역사 40억년 가운데 아직은 지금이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장소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우리만이 가장 쾌적하고 아름답고 고통이 적은 바로 극락, 천국 곧 안양의 장소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은 모두 아름답고 풍족하기 때문에 에덴의 동산이 이 우주 안에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의 역사 가운데도 지구환경이 열악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도 모두 무섭기 짝이 없었다. 말하자면 지구환경과 인간, 생물은 하나의 몸체이며, 우리 인간의 몸처럼 개체 하나 하나가 따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식의 눈이 발전한 인간은 모든 생물체의 주인으로서 혹은 머리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리적인 물리적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사들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맹장은 필요 없는 기관이라고 한다. 진화 과정에서 없어져야 할 돌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매달려 있는 장기로 인식한다. 그러나 우리 전통 철학자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필요한 기관일 것이라고 믿는다.

## 2) 입면의 삼분법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알려고 한다면 인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복궁은 근엄한 장군의 도열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경희궁과 창덕궁은 정궁인 경복궁을 향해서 옆으로 누워있는 편안한 모습을 형상화했다. 도시계획도 그것에 비유해서 판단코져 했고 풍수에서 말하는 형국론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사상에 귀결한다. 심지어 건물도 사람의 앉은 모습을 상징화한 것인데 이를 삼분법이라고 한다. 즉 건물에도 머리와 몸통, 발통(굽)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는 임원십육지에 기록되어 있다.

서양에도 이와 유사한 철학이 있어서 옥수수를 형상화한 시카고의 주차타워, 최근 사막의 사보덴을 형상화했다는 피터 아이젠만의 체육관, 유사한 런던 시청사 등 많은 건물이 동식물을 형상화해서 지어졌다. 그렇지 않다면 현대 회화에서 주장하는 인간 스스로의 인식에 따라 창조한 새로운 형상물이겠지만 이것 역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생물의 동작에서 비례치를 빌려온 것일 게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동식물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렁이, 뱀, 지네 등을 무서워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와 다르게 머리, 몸, 다리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까닭이다.

음악이나 시에 울동을 일으키는 기승전결도 인간의 모습에서 연관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간에는 머리와 가슴이 구분되어야 하고 반드시 승과 전을 이룰 수 있는 목과 허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 선조들은 주장한다. 물론 팔 다리가 설정되어야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삼분법은 비단 우리 건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양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로크건축의 결정판인 파리의 오페라좌가 그것이다. 기단, 몸통, 지붕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이것이 다시 삼분법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본다.

## 3) 최근의 아파트 입면

최근의 아파트 현상설계를 보면 이런 원칙(률)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우리나라 전통미학에서 뿌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양건축에서 본받아 온 것이 틀림없지만, 건물 아래쪽에 무거운 색상의 다른 재료를 써서 구분하고 몸통은 가로로 길게 면으로 처리하지 않고 조금 들쭉날쭉하며 지붕에는 하늘을 담는다는 캐노피식 채양을 덧붙이고 있다. 예전의 상자형 아파트와는 달라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내용(아파트 평면)까지 녹아내린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기단부의 평면과 몸통부의 집 평면이 똑같으며 지붕층은 별도로 집을 설정하지 않는 식이다.

이점 다시 한 번 다루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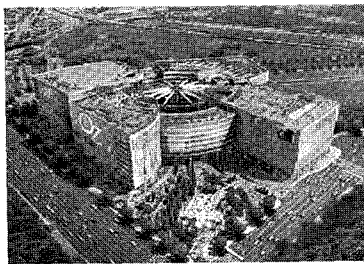
### 다. 서울시청사 계획안에 바란다.

#### 1) 다시 설계해야 할 서울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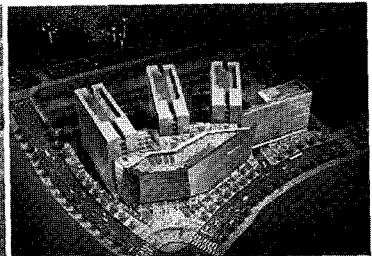
얼마 전 도하 신문에 서울시청사 계획안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진 번 계획안이 문화재청에 심의 올라갔는데 너무 거대하고 높아서 문화재인 덕수궁을 강압적으로 내려본다는 의미로 부결되었던 듯싶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조금 바꾸면서도, “한국의 머리도시 서울”이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문화재청에 심의도 올리기 전에 미리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문화재심의에서 다시 부결되었다. 부결 사유는 전번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신문에 공표되었다.

서울시청사를 왜 옛 자리에 고집하는 것인지... 그 자리는 지금처럼 그냥 비워두고 공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느 나라 도시도 구 시청사가 있던 구도심은 비워두고 다른 쪽에 도시의 핵을 만들면서 이전하는 것이 도심지 집중화를 막는 도시계획에 기본인데, 우리는 왜 굳이 도심을 고집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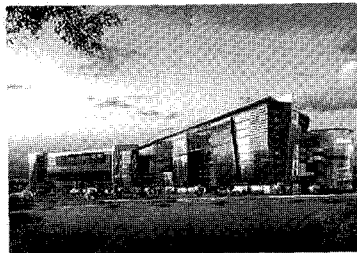
물론 도심지 상업자본의 자기이익 확보 주장을 굽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늘러왔는 것일테다. 어떻든 나는 여기서 행정과정에 대한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의 기본개념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서울시청사 계획안에 대한, 나의 전통미학적 관점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가평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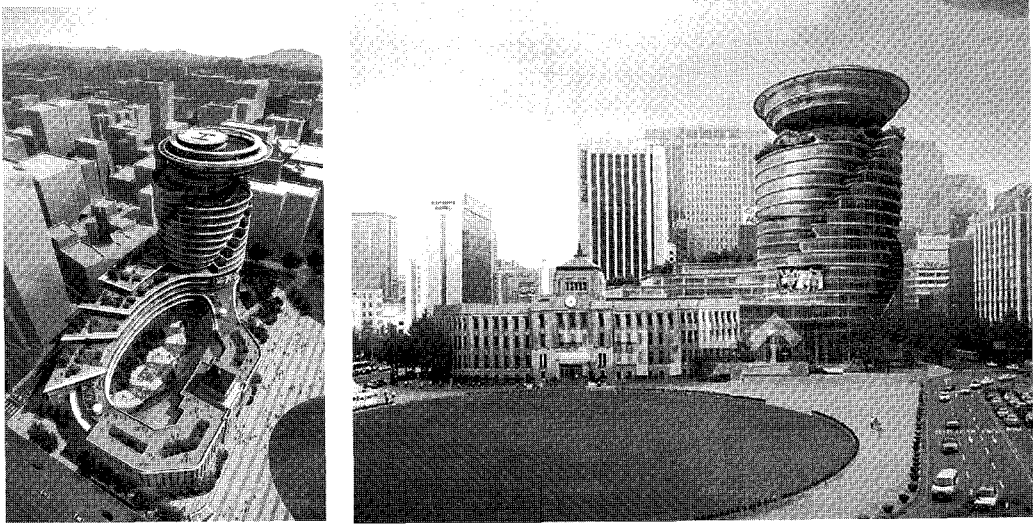


< 남동원 >



< 다보리역 >

<그림 1> 서울시청사 1차 계획안



<그림 2> 서울시청사 2차 계획안(2006. 9.)

설계자는 이것이 삼태극을 형상화했다고 주장한다. 몸체에 해당하는 빌딩에 3개의 원이 돌아가고 원의 테두리에 각 층마다 녹지를 조성하여, 어찌 보면 3태극처럼 보일런지도 모르겠다. (조감도 상에서는 확실하게 인식할 수는 없다) 이것으로 전통을 계승했느니 말았느니 하는 논의를 잠재우고 싶은 게 사실 설계자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단 이것만 삼태극 이겠는가?

## 2) 전통계승은 우리 맛을 내는 것이다.

이런 류의 전통계승을, 현대건축가들이 주장하는 예를 흔히 본다. 창살의 문양을 창문이나 혹은 어떤 조형의 모티브로 도입한다던가, 어떤 경우에는 굿판의 덩더쿵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조형언어를 본뜨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맛을 내는 것이다. 시각 예술인 건축이 가지고 있는 맛이 우리의 맛으로 살아난다면 이것은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삼태극을 조형의 방법으로 도입했다고 해서 우리식이라고 건강부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건축의 감상은 맛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다만 이 계획안은 런던 시청사와 유사할 수 있지만, 이것과 다른 느낌이 드는 재미있는 - 덜 핀 연꽃모양 등근 뿔탑 - 형상을 한다는 점에서 칭찬을 하고 싶다. 다만 형상이 깔끔하지 못하고 좀 덕지덕지 덧붙여진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이런 상징적 건물일수록 간단명료한 것이 좋다. 설계자가 너무 매달리다 보니까 외형에 눈물 콧물이 묻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머리에 이고 있는 전망타워다. 이곳은 전망이 좋으므로 시민을 위해 개방하여 스카이라운지 정도 이용하고 싶은 모양인데, 조형상으로 너무 규모가 크다. (아마도 조감도 상에 과장되었는지 모르겠다) 말이 나왔으니 삼태극의 핵이 그렇게 크지 않으며 앞서 인간 소유주론에서 머리도 그렇게 크지 않다. 어쨌든 중심핵은 비례상 그렇게 크지 않으니 참고했으면 좋겠다. 또한(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기능을 밥이나 먹는 곳으로 삼지 말고 시민을 위한 자료실 혹은 도서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망을 활용하여 밥집으로 삼

으면 밥값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서민들은 모두 시청사 헤드(핵)를 미워할 것이고 밥값을 내리면 자리가 없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각종 시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 공간으로 만들어 주면, 삼태극의 핵으로서 역할을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다음은 밥값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다. 시청사가 덕수궁 혹은 구 시청사 건물의 양각 적용을 받다 보니, 아래쪽 건물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이를 두리 문실하게 상부 몸통 빌딩에 연결하여 이어가고 있다. 이것이 전면에서는 구 시청사 건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차라리 구청사에 맞춰서 기단부 밥값을 설정해 주는 것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일인들이 식민지 착취를 위해 만들었으므로 아무리 미운 건물이지만, 역사적 선들은 서로 조화를 이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미 구 시청사가 가로 선을 가지고 있으며 세로 비례도 가지고 있는데 신청사가 이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건축에 반영한 흔적이 미약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설계자에게 부탁했지만 이런 기본기 정도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문화재청에서 또다시 심의를 부결했다니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 반성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야기 해 본다.

### 3) 자연의 비례는 아름답다

여기서 내가 이 글을 게재한 이유는 건물 비례에 있어 자연에서의 비례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미학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이다. 서울 시청사 계획안은 이것이 마치 연못 위에 막 피어나는 연꽃 봉우리 모양이므로 차라리 꼭지 타워를 없애 버리던가, 아니면 꽃술이 막 올라 올려는 듯한 조그만 핵을 올려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고언을 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설계자에게 감나라 팔나라 하는 점은 미안하지만, 설계자는 마지막 계획안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순간 작품에 고생한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하며 좀 지저분하게 된 점은 지우개로 지우고 일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집 개가 짖으면 “무슨 일인가” 관심을 갖게 되고, 이웃집 개가 짖으면 “저 개새끼가 왜 시끄럽게 굴어?” 하고 욕하게 된다는 사실은 미학에서 흔히 논의되는 말이다. 이웃집 개가 짖는다. 우리의 이웃 자연에서 비례미를 배우면 좋겠다.